호국여성 여랑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여성 의병

호국여성 여랑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여성 의병

전남여성플라자

작가의 말

2018년은 전라남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전라남도라는 행정구역이 시작된 지 10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전라도는 정의로운 고장이라 하여 의향義鄕이라 불렸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섰던 자랑스러운 고장임에 틀림없다. 전남의 의로운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시대정신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 책은 420년 전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의 하나인 명량대첩에서 결정적인 첩보를 제공하여 공을 세운 호국 여성 '어란'의 이야기이다. 호국 여성 '어란'은 조선 선조 때, 7년(1592~1598)동안의 임진왜란(1597년 정유재란 포함) 당시 가장 중요한 왜적의 공격 기밀을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게 알려 주어 명량대첩을 승리하게 한 일등 공로자이다.

국가적인 절체절명絕體絕命의 위기에 호국 여성 '어란'은 이순신 장군에게 왜적의 군사 기밀과 출전 계획을 알려준다. 이 기밀을 접

한 이순신 장군은 치밀한 전략을 세워 선제공격을 감행한다. 그리하여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명량대첩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만일 그 때 조선이 열세 상황에서 왜적의 동태나 출전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몰랐더라면 명량(울돌목)대첩은 실현 불가능 한 일이었다. 명량대첩에서 왜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어란'이 제공한 정보가 결정적이었다.

그동안 지역과 여러 언론·매체 등에서 '어란'을 칭할때 '의인 어란'이나 '어란 여인'이라 지칭하였으나, 필자는 호국 여성 '어란'이라 이름 하고자 한다. 호국 여성 '어란'의 업적은 한 개인의 행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식과 활동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의 대부분이 남성중심의 기록(history)이므로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이 이루어 낸 공로나 활약은 기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호국 여성 '어란'이 전쟁 상황에서 어떤 지대한

공적을 세웠는지, 그리고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고 자리매김 되고 있는지 여성중심의 이야기(her story)를 써보려한다.

물론 여성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의 활약상이 많지는 않으나, 드물게나마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성과가 있어도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이제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켜낸 여성 인물들을 발굴하고 이름도 없이 구전口傳으로 내려온 지역의 여성 인물들을 기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성을 지켜야 할 임금(선조)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고 조정은 당쟁에 더 급급하였지만, 호국 여성 '어란'은 자신의 목숨 을 던져 나라를 구했다. 이런 점에서 '어란'은 당대 남자들보다 용기와 지혜가 출중한 전남 여성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11월

필자 박옥임

차례

작가의 말 04

1. 나라를 지켜 낸 호남 백성들 08
2. 이순신의 명량대첩, 그리고 여성 의병 '어란' 10
3. 명량대첩 일등 공로자 : 호국 여성 '어란' 18
4. 강강술래와 호국 여성 '어란' 24
5. 실존 인물 호국 여성 '어란'을 찾아서 27
6. 죽어서도 살아있는 호국 여성 '어란' 31
7. 호국 여성 '어란'은 어떤 여성인가 43

참고자료 46

1. 나라를 지켜 낸 호남 백성들

–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우리나라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1592~1598)동안 왜적의 침략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임금인 선조를 비롯한 높은 관직의 신하들은 서둘러 피난을 떠나면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에 급급하였다. 하지만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백성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들고 일어나 치열하게 싸운 결과 왜적을 물리치고 1598년 11월에 마침내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격렬하고 장기화된 전쟁 통에 전 국토는 초토화되어 백성들은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렇지만 풀뿌리 민초들은 죽기 살기로 힘을 모아 이겨냈다. 특히 이순신 장군과 호남의 백성들의 활약이 아니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났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임진왜란이라는 7년간의 기나긴 전쟁 내내 이순신 장군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던 호남지역의 백성들은 무능한 지도자들과는 달랐다. 호남의 백성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망설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의병에 자원하였고, 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군복 등의 요청에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내주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하는 임금이나 대신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한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지만 오히려 순박한 백성들은 죽음을 불사한 의로움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유재란 때에 왜군은 전라도를 점령하려고 모든 병력을 총 집중했기 때문에 전남 지역 백성들의 피해가 가장 컸었다.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군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인적,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했었다. 그래서 전남은 지금도 의로운 땅 의향義鄕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호남 백성들의 의로운 정신과 행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긴 바 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기에 처한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 때도 물론이고 해방이후 굴곡진 현대사에도 면면히 흐르는 시대정신으로 호남인들의 의식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2. 이순신의 명량대첩, 그리고 여성 의병 '어란'

1)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왜적들은 초기 임진왜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 이순신 장군이 이끌고 있는 조선수군에게 패한 것과 군량을 조달하는데 가장 적합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왜적들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정유년인 1597년에 정유재란을 일으켜 다시 조선을 침략하였고, 최우선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을 물리치는 것과 전라도를 궤멸시켜 양곡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임진왜란 때보다 훨씬 많은 300여 척의 군함과 14만 여명이라는 막강한 규모의 수군과 함께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들의 계획은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을 따라 한양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왜적에게 우리 수군이 경남 거제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하고 난 직후, 조정에서는 백의종군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한다. 이순신 장군이 부임하여 왜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력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해 보니, 핵심전력인 거북선은 모두 부서져 1척도 없었으며, 남아 있는 배마저도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12척 뿐이었다. 군함 등 무기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수군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해 전력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형편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조정에서는 하루 빨리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재촉하니 설상가상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급히 장계를 보냈는데 이 장계에 바로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라는 비장한 다짐이 담겨있다. 부서져서 성능에도 문제가 많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병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왜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적은 수의 배지만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선량한 백성들을 보호하려면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해 싸워야만 했다.

왜적의 침략에 철옹성 같던 진주성이 무너지고, 많은 전함과 수군으로도 칠천량 해전에서 크게 졌으니, 왜적들은 기세등등하게 한양을 향해 전진해 나갈것이었다. 그렇다면 가장 짧은 지름길이 어디인가. 바로 이곳, 진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명량해협을 반드시 통과할 것으로 간파했다. 여기가 바로 사생결단의 치열한 싸움터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이순신 장군 역시 판단했다. 왜적은 분명히 수륙병진책을 쓰면서 육지로는 진주성을 함락하고 파죽지세로 남원으로 해서 북상할 것이며, 해상으로는 경남 남해안을 통과하여 지름길인 전남의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명량(우리말 지명은 울돌목)을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그것을 간파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왜적이 명량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여기가 정유재란의 최대의 격전지이자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우리 수군이 보유한 전함과 병력을 점검해 보니 말 그대로 군대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이 초라했다. 허술한 장비는 물론이고 수적으로도 열세인 얼마 되지 않는 수군으로 막강한 왜적과 대적할 수 있을지 한숨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나라의 흥망이 갈리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결전을 눈앞에 둔 시점에 수군사령관격인 경상우수사 마저 아프다는 핑계를 대더니 결국 도망쳤다. 다른 부대에서 믿고 따르던 장수가 도망을 갔다는 사실이 전해지니, 불안에 떨던 군졸들도 더욱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우 배 12척과 죽음의 공포로 불안에 떨며 땅에 떨어진 수군의 사기로 저 기세등등한 왜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죽기를 각오해야만 했다. 승산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싸움을 앞두고 휘하 장수는 물론 모든 수군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를 절박하게 외치며 엄중한 군령으로 독려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이 유명한 말씀은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곤경에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마음으로 임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러한 비장한 각오로 싸워 승리한 기적과도 같은 명량대첩은 세계

의 해전사海戰史에 빛나는 전쟁으로 꼽히고 있다.

2) 난중일기의 '김해인'이 바로 '어란'

이순신 장군은 군인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지만, 백성이나 의병들에게는 따뜻하고 각별하였다. 덕망이 높았기에 군영 인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백성들 역시 자발적으로 장군을 따르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백성들은 우리 수군의 승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특히 명량해전을 앞두고 날씨는 물론 지형까지 세밀하게 점검했다. 울돌목이라는 특수한 해저지형을 파악하여 전쟁에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구상해 놓았고, 밀물과 썰물의 시간대까지 해남과 진도의 바닷가 백성들로부터 수집해 놓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군의 전력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뜻하지 않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1592년 1월부터 정유재란이 끝나가는 1598년 11월 17일까지의 7년간을 직접 기록한 난중일기亂中日記를 보면, 명량해전을 이틀 앞둔 시점인 1597년 9월 14일(음력)에 육지를 정탐하고 온 임준영任俊英이 보고하기를 김해인金海人이라는 여성이 포로 김중걸金仲乭에게 9월 16일(음력)에 왜적의 대규모 출전 기밀을 알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김해인이 호

국 여성 '어란'의 귀중한 자료이자 단서이다.

十四日壬辰, 晴而北風大吹. 任俊英陸路偵探陸地, 馳來曰,

"賊船五十五隻, 己入於蘭前洋." 且曰. "被擄逃還仲乞傳言內,

'今月初六日, 避亂于達摩山, 爲倭所擄縛,

載倭船 金海名不知人,

乞于倭將處解縛, 夜金海人附耳潛言曰,

「朝鮮舟師十餘隻, 追遂我船,

或射殺焚船, 不可不報復. 招聚諸船, 盡殺舟師人,

然後直上京江」' 云云".

此言雖不盡信, 亦不無是理, 故送傳令船 右水營,

避亂人,卽上去事敎之.

— 이순신 지음·노승석 옮김, 『난중일기』, 민음사, 2012, p. 671~672

여기 이름을 모르는 '김해인'이란 자는 여성임이 분명하다. 조선 시대에 여성들은 남성우월적인 엄격한 가부장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이거나 대외활동을 할 수 없었다. 당시 여성들은 이름도 없이 일반적으로 본관本貫에 성씨姓氏와 사람 인人을 넣어 족보나 묘비墓碑 등에 기록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 김해인이 바로 호국 여성 '어란'이다.

'어란'은 왜적에게 붙잡혀 왜적들의 배에 갇혀 있는 김중걸金仲乞

이라는 포로를 왜군의 장수 칸 마사가게[管 正蔭]에게 풀어주라고 간청하고, 자신이 입수한 기밀을 김중걸을 통하여 이순신 장군에게 전달하였다. 그 기밀은 왜군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공격을 실행하려는 시간과, 왜군 함대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 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김중걸을 통해 정탐한 정보를 임준영이가 이순신 장군에게 전달하자 난중일기에는 '모두 믿기는 어려우나 그럴 수 없는 것도 아니여서' 백성들에게 모두 육지로 올라가 있으라 하고 선제공격을 감행한다. 이순신 장군은 이 첩보를 바탕으로 울돌목의 특수한 지형과 바닷물의 조수 흐름을 현지 백성들이나 자원하여 싸운 그 지역 의병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략과 전술을 세웠다.

만일 그 때 전력상 형편없는 열세 상황에서 '어란'이 전해준 왜적의 군사정보와 출전기밀이라는 정보를 몰랐더라면 명량(울돌목) 대첩은 실현 불가능하였을지 모른다. '어란'이 포로로 잡힌 김중걸에게 전달한 왜군의 군사력과 출전기밀은 매우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였다. 손자병법에 나온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라는 말처럼,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의 마음가짐과 비록 12척에 불과할지라도 완벽한 전쟁준비, 그리고 '어란'이 전해준 적군의 군사기밀까지 있었으니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명량대첩이라는 대결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일단 우리 수군

진영의 전력 손실도 막을 수 있으면서 왜군의 동태와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진도 벽파진으로 옮겼다. 겨우 배 12척으로 10배가 넘는 133척이라는 막대한 군함과 많은 수군을 대적해야 하는 왜군과의 필사적인 결전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다. 온갖 지혜를 짜봤지만 신통한 해결책이 나올 리가 만무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으니 방법을 찾아야했다.

전쟁에서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싸우는 장수와 병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적에 관한 모든 정보와 동태를 파악하는 일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그래서 전쟁은 정보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고도 한다. 흔히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을 척후병 또는 탐망군이나 별진군別進軍(특별히 편성된 정찰병)이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탐색하고 보고하는 일을 맡은 병사들은 해남과 진도, 완도 등 해안가의 지리를 꿰뚫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임무이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이라는 무패의 위대한 장군으로 추앙받은 가장 큰 이유는 치밀한 작전 계획에 의한 전략 전술에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 탁월한 전략 전술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지역의 백성이나 의병들로부터 탐지한 믿을 만한 정보에 근거해서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호국 여성 '어란'의 일급정보를 허투루 듣지 않고 전략에 사용한 것 역시 마찬가지 였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진 수군의병水軍義兵들의 공로를 아주 고맙게 여겨 조정에 특별한 포상을 요청하였다. 『이충무공 전서李忠武公 全書』 권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수군水軍에 자원自願해 온 후 2년 동안 군량을 자비自備하여
> 두루 공급하면서 어렵게 근근이 이어 댄
> 그 노고勞苦의 정상情狀은
> 군관軍官보다 배나 더함이 있었는데 아직도
>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 지난날 전투시 토적討賊함에서도 뚜렷한 전공을 남겼으며,
> 나라를 위한 의구義舊의 마음이
>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
> 극히 가상嘉尙할 만합니다
>
> – 곽의진, 『이충무공 전서』, 솔과학, 2009, p. 245

이순신 장군은 김해인 '어란'이 전해준 정보내용을 승패를 가르는 중대한 정보라고 판단하고 탁월한 전략으로 기적 같은 명량대첩 승리를 이루어냈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김해인金海人이 바로 명량대첩의 일등 공로자 호국 여성 '어란'이며,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쟁

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어란'은 '여성 의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3. 명량대첩 일등 공로자 : 호국 여성 '어란'

– 명량 대첩은 알아도 '어란'은 모른다

호국 여성 '어란'이 제공한 왜적의 출전 기밀은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의 운명을 일으켜 세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리로 결국 왜적은 힘을 잃고 퇴각하게 되었으니, 한마디로 '어란'은 명량대첩의 일등 공신이자 공로자일 것이다.

세계 해전사에도 위대한 승리로 꼽히는 명량대첩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빛나는 업적인 명량대첩은 알아도 '어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명량대첩의 승리에 큰 공이 있는 '어란' 이라는 호국여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저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Carr)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한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명량대첩의 승리에 기여한 '어란'에게 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런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작은 시도이다.

호국여성 '어란'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물은 여러 자료에서도 찾

김훈, 『칼의 노래』, 문학동네, 2012

아볼 수 있다. 2004년 9월~2005년 8월까지 방영된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李舜臣〉의 작가였던 김훈은 본인의 책 『칼의 노래』에서 명량대첩의 승리가 어떤 여성의 결정적인 제보 덕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잡혀온 여성 한 명이 전쟁 후에 바다에 투신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기밀을 토대로 조선 수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전투 병력을 가진 왜적을 통쾌하게 물리친 명량대첩 승리를 거두었다. 이 기적 같은 명량대첩이라는 세계의 해전사海戰史에 길이 남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낸다.

진도 출신 소설가 곽의진(2009)의 역사소설 『민民』을 보면 왜군

곽의진, 『民』, 솔과학, 2009

장수에게 포로로 잡힌 김중걸金仲乭에게 명량대첩 승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김해인金海人이 누구인가에 대해, 왜군에게 잡혀간 해남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중걸이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고서야, 또 이순신 휘하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무엇 때문에 왜장에게 간청하여 풀어주라고 청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중대한 첩보 기밀을 전해 주는 것 역시 불가능했을 것이다.

2014년 개봉하여 1760만 명 이상의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한 영화 〈명량〉에서도 '어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몸을

영화 〈불멸의 이순신〉(2014)

사리지 않고 나라를 구하는 데 온갖 정보와 첩보를 제공한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란'의 활약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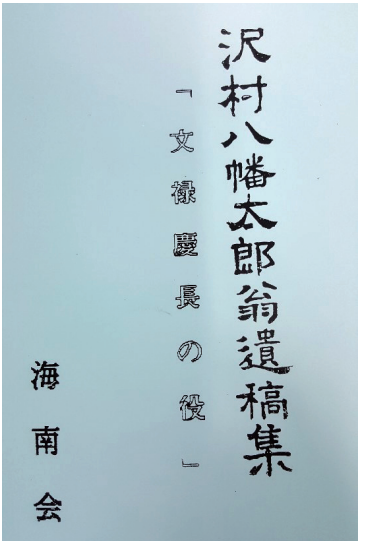
이순신 장군에게 명량대첩 승리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어란' 김해인과 왜장에게 포로로 잡힌 김중걸이 친족이거나 해남이나 진도 등 지역민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은 또 있다. 현재 해남군 송지면 어란 입구에 김해김씨 사군파金海金氏 四君派의 비가 세워져 있다. 해남과 진도지역에 김해김씨의 집성촌이 상당한 규모로 조성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김해인 '어란'에 대한 정보 중에 일본인이 쓴 특이한 기록도 존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입구의 김해김씨 사군파

재한다. 일제 강점기에 해남 등에서 26년간 거주한 일본사람 사와무라 하치만다로[澤村八幡太郎]가 쓴 『문록·경장의 역, 文祿·慶長의 役』에 의하면 명량해전에서 왜적이 참패한 이유를 김해인의 첩보 행위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해인 '어란'을 이순신 장군과 선이 닿아있는 여성 정보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전쟁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군사력의 확보성도 중요하지만, 공격의 시기나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얼마나 확보하는지, 상대편에게 노출하지 않는지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호국 여성 김해인 '어란'은 해남지역 김해 김씨 성을 가진 장군 휘하의 여성 의병이



사무하라 하지만다로(澤村八幡太郎), 『문록·경장의 역(文祿·慶長의 役)』

자 여성 정보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명량대첩이 승리로 끝난 다음 날인 1597년 9월 17일(음) 호국여성 '어란'은 여낭터에 가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한다. '어란'의 삶은 자신의 희생으로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의병의 삶 그 자체이다. 해남지역의 지역민으로서, 조선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충실하게 완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절벽에서 투신하여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부모와 형제들이 임진왜란 중에 다 죽임을 당하고 없어 돌아 갈 곳도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의로운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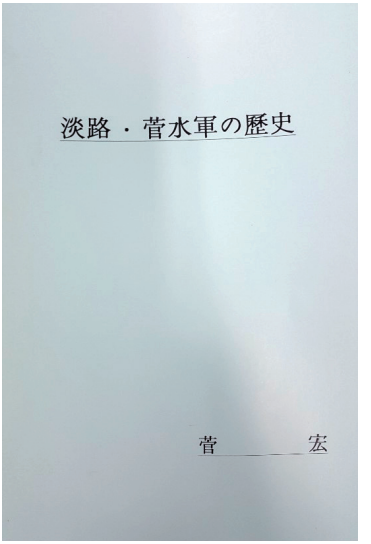
이 작게는 가족에 대한 복수도 있지만 크게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걸고 해 냈으니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목숨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어란'이 살았던 지역의 한 어부가 어란진 선착장까지 떠내려 온 한 여성의 시신을 수습하여 소나무 밑에 정성껏 묻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그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이름 없는 무덤이 석등롱 근처에 있어 마을 사람들이 벌초를 빼놓지 않고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묘 위쪽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무연고 묘로 처리되어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졌다며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살아서 나라를 구하고, 죽어서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마을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어란'의 삶은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전남 여성으로서 깊은 존경심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4. 강강술래와 호국 여성 '어란'

– 민족의식이 깃들어 있는 여성들 놀이

그렇다면 호국 여성 '어란'은 누구로부터 그렇게 정확한 왜적의 특급 출전 기밀을 알아냈을까. 토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豐臣秀吉)의 절대 신임을 받는 왜장 칸 마사가게[管 正蔭]로부터 극비리에



칸 히로시(管 宏), 「淡路·管水軍의 歷史, 2006」

빼내었다. 그는 왜군의 총선봉장인 고니시 유기나가[小西行長]의 부하 장수로 왜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다스리는 숙정肅正담당의 총괄 장수이다. 그의 아버지인 칸 히라우이몬[管 平右衛門]은 조선 파병 5대 수군 장수 중 한 사람이었다.

난중일기에 의하면 명량대첩이 있었던 1597년 9월 16일(음력), 그림 무늬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자가 적장 '마다시[又四]'라 지목하기에 바로 죽였다고 쓰여 있다. 이 마다시가 칸 마사가게[管 正蔭]와 동일 인물이라고 그 후손 칸 히로시[管 宏]의 「淡路·管水軍의 歷史」 자료에 밝히고 있다. 그 아버지 칸 히라 우이몬[管 平右衛門]은

아와지[淡路]섬을 지배하는 수군水軍 사무라이이고, 그의 형 3명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당항포 해전에서 죽는 등 일가 모두가 일본의 전형적인 왜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칸 마사가게와 우리 민속놀이인 강강술래(국가무형문화재 제8호)와는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이 창안한 군사 놀이라고도 하고 '오랑캐가 물 건너 온다'는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의 한자어의 차음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전남 해남과 진도지방에서는 정유재란 때 왜장인 '칸 마사가게 악인을 내쫓아라'는 뜻으로 관간수래管姦逐來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다. 호국 여성 '어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가장 설득력이 높다. 더구나 강강술래에 대해 일본인 사무하라 하지만다로[澤村八幡太郎]가 자기네들 연호를 붙여 만든 「文祿·慶長의 役」의 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때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 낮에 생업에 종사한 부녀자와 아동이 야간에 마을 앞에 모여
> 입으로 부르고 몸으로 뛰면서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놀이다.

위의 내용으로 유추하건데,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강강술래도 호국 여성 '어란'과 깊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강강술래 장면(출처 : http://novusager.blog.me/900)

5. 실존 인물 호국 여성 '어란'을 찾아서

– 이름이 없어도 실체는 있다

호국 여성 '어란'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여성 의병으로서 허구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인물이다. 이제 위대한 호국 여성 '어란'이 실존 인물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어란於蘭이라는 이름에 혼란이 따른다. 왜 지명인 마을 이름 어란과 김해인 호국 여성 '어란'을 혼재해서 쓰고 있는 것일까?

1) 어란 마을의 지명과 역사

원래 어란於蘭은 지명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어란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지역을 통칭한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며 땅 모양이 난초처럼 생겼다 해서 어란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다. 이곳은 조선조에 어란진이라는 수군 주둔지로 주요 해상 거점 지역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피하는 곳'으로 진도珍島를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상 어란진이라는 수군의 요충지로, 종4품의 벼슬인 만호萬戶가 관장하는 곳이었다. 지금도 어란 마을에는 조선시대의 만호 공적비 5점이 마을 경로당 입구에 남아있다. 그런데 조선조 500년 동안 수많은 만호들이 부임하고 이임하였을 텐데, 왜 만호 공적비가 5점 밖에 남아 있지 않느냐고 의아해하니 지역 어르신께서는 의미심장한 증언을 하신다.

> "역대 만호들이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 임지를 떠날 때 공적비를 세우라고도 하고,
> 선정을 베푸는 만호를 기리기 위해
> 백성들이 직접 송덕비를 세우기도 한다.
> 후자의 경우는 지금도 5점이 보존되어 있으나
> 나머지의 경우는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 이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전자의 경우 대개 선정보다
> 악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떠난 다음에 훼손해 버린다"

만호 공덕비

이 비석과 관련한 증언을 들어 보니 우리나라 육지의 최남단 땅끝인 해남의 백성들은 의롭지 못하는 처신을 하는 벼슬아치에 대해서 나름의 저항 정신과 행동이 후세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지역의 강직한 의식과 태도는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전쟁에 의병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인 것이다. 그래서 '어란리'라는 지명처럼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 역시 난초처럼 높은 기개와 강한 의지, 그리고 아름다운 품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고난에도 쉽게 굽히지 않는 굳건한 정신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2) 김해인이 '어란'이라 불리는 이유

그렇다면 『난중일기』에 나오는 김해인(호국 여성 '어란')이 왜 마을 이름과 같은 '어란'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 추리해 볼 수 있다. 지금과는 다르게 옛날 여성들은 대외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억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공식적인 직함은 물론이고 개인의 이름조차 없이 살아왔다. 결혼전에는 아버지 이름 뒤에 '○○네 집 딸'이나 여식女息으로, 결혼 후에는 큰 자녀 이름을 앞에 넣어 소위 종자명제從子名題식으로 '○○네 어머니'로 부를 수 밖에 없었다. 또는 친정 동네의 마을 이름을 넣어 '○○댁'이라는 등 택호宅號를 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동네 지명을 쓰는 남성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다. 나이 지긋한 남성들의 경우 본명을 함부로 부르기보다는 호칭으로 허물없이 본 이름 대신 따로 지어 부르는 아호雅號를 정할 때도 자신들의 마을 뒷산이나 자연의 지명을 쓰는 경우들도 많았다.

관군이 아닌 남성 의병인 경우에도 그저 막 부르는 이름을 쓰거나 이름조차 문서에 수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하물며 여성 의병인 '어란'의 경우 어찌 김해인 '어란'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될 수 있었겠는가. 호국 여성 '어란'은 이름대신 그녀가 낳고 자란 마을 이름인 '어란'으로 불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름이 없다고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어란'은 이름 없는 무명의 김해인

金海人의 본관에 어란이라는 이름을 붙여 호국 여성 '어란'혹은 의병 '김어란'으로 작명되어 정식으로 불러져야 할 것이다

6. 죽어서도 살아있는 호국 여성 '어란'

– 부정할 수 없는 여러 증거

호국 여성 '어란'은 결정적인 1급 정보를 제공하여 적장의 목숨까지 앗았을 뿐 아니라 전쟁 자체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국가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업적이자 시호諡號를 받는 다른 남성 장수 못지않은 위대한 행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한시적인 생을 살아간다. 그렇지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단지 죽음으로써 생이 끝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용기있고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 넘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오래도록 기억된다.

호국 여성 '어란'의 생애도 무려 42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정신과 자취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다. 이쯤 되면 역사 속에서 '어란'이 다시 살아 숨 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와 같은 임진왜란 당시, 명량대첩을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호국 여성 '어란'이 있었기에 나라가 온전할 수 있었다. 명량대첩에 결정적인 첩보를 제공하여 나라를 구한

호국 여성 '어란'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물이 있다.

1) 여낭터(여낭치)

호국 여성 '어란'은 왜적의 장수로부터 탐지한 특급 출전기밀을 이순신 장군에게 알려준 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전보를 들은 바로 다음 날인 1597년 9월 17일(음) 생을 마감한다. '어란'은 마을에서 약 1.5km정도 떨어져 있는 바위 절벽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그곳은 명량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여자가 떨어져 죽은 곳이라 하여 여낭터라고도 하고 여낭치라고 부르고 있다.(한자어로 여자女와 떨어질 락落으로 구개음화)

'어란'은 왜 바닷가 절벽에서 뛰어내렸을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세운 '어란'여인 이야기 비석이나 어란 마을 입구에 세워진 '명량해전과 어란 여인 이야기' 입간판은 공은 세웠으나 연인관계로 해석하여 앞뒤가 맞지 않아 오히려 폄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석의 내용을 보면 '어란'의 연인은 일본의 장수 칸 마사가게였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벌일 당시 적의 핵심 장수이었다. 칸 마사가게로부터 일급 비밀을 알게 된 '어란'은 이순신 장군에게 이를 알렸고 결국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성공하게 된다. '어란'은 명량해전의 숨겨진 일등 공신으로 비

여낭터 가는 길 표지판

록 나라를 구하였으나 사랑하는 연인인 칸 마사가게가 해전에서 전사한 것을 알 게 된 '어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인으로서의 '어란'이 아닌 호국 여성이자 의병으로서의 '어란'이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것처럼, 김해인과 김중걸과의 관계와 김중걸을 통해 왜적의 일급 기밀이 이순신에게 전달된 점을 미루어 볼때, 김해인 '어란'의 자살은 연인을 잃은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떻게 7년 동안 온통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적군의 장수가 연인이 될 수 있었을까?

여성 의병으로서 정보를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왜장의 가까이에 있었다는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목숨 걸고 수행한 자신의 사명을 완성했다는 의무감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호국 여성 '어란'이 떨어져 생을 마감한 낭떠러지인 여낭터에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지도

일제강점기에 해남에서 거주한 일본인 후손들의 모임인 '해남회'에서 어란 상과 비석을 세웠다(2013. 12. 30). 또한 그들은 해남과 진도에서 번갈아 주최하는 명량축제 때도 해마다 찾아오고 있다.

2) 어란 묘

'어란'이 투신한 다음 날 한 어부가 '어란'의 시신을 수습하여 소나무 밑에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정성껏 묘를 썼다고 한다. 그러

여낭터에 세운 어란 상과 표지석

나 이후 군부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어란'에 대해 알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 둘 돌아가시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어란'의 묘 흔적은 물론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마을 어르신의 증언에 따르면 묘 근처로 추정하는 장소는 바닷가로 양지바르고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이 선행을 한 어부는 호국 여성 '어란'에 대해서 그 의로운 행적을 조금은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란'이 그 마을 사람이기에 묘를 쓸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지역에 묘를 쓸 때 지역과 전혀 연관이 없으면 마을에서 묘를 쓸 수 없게 하는 관습이 존재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란'이 그 마을 사람이 아니고서는, 또 공적이 없는데 묘를 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해남군 송지면 어란 마을 입구에 세운 안내판(2017. 9. 20)

3) 어란 당집

원래 당집이란 민간 신앙의 하나로 건강과 복을 염원하는 공간이다. 특히 바닷가 사람들에게 당집은 바닷일을 하는 동안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들의 무탈을 기원하는 공간이다. 가족들의 건강과 하는 일마다 잘 되라고 행운을 비는 기복신앙祈福信仰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어란'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당집을 지어 신주神主로 모시고 지금도 정성껏 당제를 지내고 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어란'을 '어란 할머니'라 칭하면서 마을의 수호신처럼 잘 받들고 지켜왔다. 당시 남존여비적인 사회상을 고려해 봤을 때, 여성을 당주로 모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당집은 3번째로 지어진 것이다. 첫 번째 당집은 '큰 당'이

송지 어란 당집

라 불렸는데 거의 산꼭대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방향은 북향이며 우수영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큰 당'은 명량해협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 당집이 위치해 있었다. 또한 '큰 당' 주변에는 대나무 밭이 있었으며 돌로 된 석축이 남자 허리높이 정도의 높이로 둥그렇게 쌓여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당집은 '작은 당'이라 불렸는데 '큰 당'에서 조금 더 내려온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현 당집은 세 번째 것으로 당집 중 가장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당집 앞에는 〈송지 어란 당집〉이라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며,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제 20호로 2011년 5월 27일 지정되었다. 이 당집은 1980년 대 지은 것으로 최근 개보수하여 예전의 흔적이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주민들은 호국 여성 '어란'을 당주堂主로 모시고 마을과 바다를

지키는 수 호신으로도 예우하고 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당제를 지내면서 아주 정성스럽고 예를 갖추어 지내고 있다. 지금도 현재의 당집에서 어란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씩 윤번제로 음력정월 초하룻날(음력 1월 1일) 정성스레 당제를 지내고 있다. 최근에는 예전만큼은 못 미치지만 6개 반으로 되어있는 마을 사람 중 지목된 사람이 당제를 지내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네 스님에게 부탁하여 당제를 지내고 있다.

당제를 주관하는 제주祭主 선정은 지금도 마을에서 지정하고 있다. 50여 년 전 직접 당제를 지냈던 마을 어르신의 증언에 따르면, 제주는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 제물 준비 등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조건과 행동 기준이 있다고 한다. 제주가 당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태도가 지나치게 제주를 규제하는것 같지만 성실과 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집에 금줄을 미리 쳐 놓고 누구도 들어오게 하지 말 것
제물은 반드시 대나무로 된 석작에 담아 올 것
제물을 사러 갈 때 걸어서 갈 것
물건을 살 때 절대 깎지 말고 주라는 대로 값을 줄 것
누구를 만나든지 말도 하지 말고 바로 당으로 갈 것
솥 등 당제 지내는 모든 집기 일습을 준비해서 당으로 갈 것
세탁도 하지 말 것

마을에서는 밭에 인분도 주지 말 것

절대 싸우지 말고 조용히 할 것

부부간에도 손도 잡지 말 것

소변을 보면 반드시 손을 씻을 것

대변을 보면 반드시 목욕할 것

한 때 마을 사람들은 당집에 모셔 있는 신주가 왜 남자가 아닌 여자인지 의아해 했다 한다. "보통 다른 지방에 있는 사당에 가면 다 남자를 모시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여자를 신주로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동네 어른들이 전해오는 이야기라면서 "그 여성 분(어란)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신주로 모시고 받들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 누구나 〈송지 어란 당집〉의 신주神主를 '어란 할머니'라 하면서 호국 여성 '어란'을 모셔 놓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당제는 정월 초하루에 한번 지내지만 마을 사람들은 정월 한 달 동안 가족의 건강과 무탈을 정성껏 기원하러 당집을 찾는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당주인 '어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당주로 모시고 있는 것 자체에 강한 긍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호국 여성 '어란'은 이미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이자 각 가정의 액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기복신앙의 대상

어란 당집 내부

으로 자리 잡아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당제를 지내며 지켜 내려오고 있다하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 석등롱石燈籠

어란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업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지역 어민들은 호국 여성 '어란'의 묘 앞에 석등롱石燈籠을 세워 놓았다. 석등롱은 나라를 지켜 낸 호국 여성 '어란'의 혼령을 위로함

과 동시에 바닷길을 오가는 선박을 지켜달라는 염원이 담겨있다. 바다는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등대와 같은 석등롱을 세웠다. 배의 안전에 필수적인 등대 불을 밝혀 어두운 밤바다를 지키게 한 석등롱은 훼손되어 없고 받침대인 헌등대 형태로 흔적만 이곳에 남아 있다.

석등롱의 모양은 돌로 네모나게 만든 형태로 지금의 헌등대 위에 사방으로 유리로 둘러 싸여 있다. 뒤쪽 한 면에 유리 미닫이식의 장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돌로 된 덮개가 얹어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끄떡없었다고 한다. 석등롱 안에는 저녁마다 불을 켜 놓았기 때문에 환하였다고 한다. 이 석등롱은 바다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후미진 마을 기슭도 비추고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 아주 요긴하고 고마운 시설로 자리하였다.

석등롱은 해방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깜깜한 밤에 지나가는 배의 안전 운항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다. 그리고 석등롱에 불을 켜고 끄는 사람은 석등롱에서 약 100m 밑에 있는 어업조합에 근무하는 사환으로, 날마다 저녁 퇴근 때 켜 놓고 아침 출근에 와서 불을 끄곤 했다. 호국 여성 '어란'은 죽어서도 석등롱이라는 등대로 마을을 밝혀 주면서 동시에 뱃사람들의 안전도 지켜주는 생활 길잡이로 자리하고 있었다. 나라가 왜적의 침략으로 바람 앞의 촛불같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하자 이순신장군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을 세우더니, 사후에는 어둠 속의 빛으로 다

헌등대

시 살아나 후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석등롱 바로 15m정도 아래에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에서 호국 여성 '어란'을 기리기 위해 2012년 12월에 "어란" 여인 이야기라는 비석을 세워 놓았다.

"어란" 여인 이야기 비석(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7. 호국 여성 '어란'은 어떤 여성인가

– 주체적인 삶을 산 고결한 여성

인류의 삶에 절대적인 진리는 자유와 평화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앞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왔던 희생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나라가 국난에 처해 있을 때 남성들이 의병으로 나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선 사례는 많다. 여성이라고 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의병에 참여하지 말란 법이 있는가. 다만 여성이 전쟁에 참여하여 싸우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국 여성 '어란'은 질곡 같은 사회구조와 참혹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은 자랑스러운 여성 의병으로서 실존해 있었다.

여성 의병으로 활약한 호국 여성 '어란'이야 말로 긍지 높은 여성의 표상이다. '어란'의 행적을 살펴보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여성이었다. 대개 자기인식이나 사회문제에 뚜렷한 의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의 안녕에 비중을 두지만, 사회적인 존재로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내면에 강인한 정신이 살아있다. 그러므로 강인한 정신력으로 개인의 삶을 희생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택한 '어란'은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호국 여성 '어란'은 지명인 어란 마을과 이름이 같다. '어란於蘭'은 난초를 뜻한다. 사군자四君子 중 하나인 난초는 겉은 부드러우나 속내는 강한 외유 내강外柔內剛의 덕목에 빗대어 많이 쓰인다. 난초를 뜻하는 '어란'이란 이름은 그녀의 행적과 가장 잘 부합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몸으로 적의 일급 비밀을 알아내어 이순신 장군에게 전달한 호국 여성 '어란'은 그 이름처럼 외유내강의 모습을 지니고 있던 여성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소설『대지大地』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 벅(Pearl S. Buck,1892~1973)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였다. 실화를 바탕으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시대적 배경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 저항하는 한국인 3대를 그린『살아있는 갈대(The Living Reed)』라는 소설에서 '한국은 고상하고 긍지가 높은 사람들이 사는 보석같은 나라'라고 평했다.

호국 여성 '어란'이야말로 고상하고 긍지가 높은 보석 같은 존재다. '어란'은 엄청난 자기희생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여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가 후대의 망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역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여성 의병으로 활약한 호국 여성 '어란'의 공적과 정신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려야 할 책무가 있다.

참고자료

어란 자료

•고형권(2018), 역사소설『남원성』, 구름바다
•곽의진(2009), 역사소설『민(民)』, 솔과학
•김세곤(2014),『정유재란과 호남사람들』, 온새미로
•김훈(2012),『칼의 노래』, 문학동네
•박승룡(2009), 호국여인 어란 자료집, 어란보존현창회
•박승룡(2017),『호국 여인 어란을 찾아서』, 심미안
•이순신 지음·노승석 옮김(2012),『난중일기』, 민음사
•조원래(2014) 감수,『정유재란과 왜교성 전투』, (사)이충무공유적영구보존회
•해남회(海南會),「文祿 慶長의 역, 澤村八幡太郎翁遺稿集」
•管宏,「淡路·管水軍의 歷史」

어란 관련 언론 및 행사

•2007. 9. 21. 해남신문(제828호), '해남에도 의인 논개가 있었다'
•2008. 1. 14. 서울신문(제21339호), '왜군 명량해 출전일 충무공에 알려 대승(大勝) 숨은 공로.
•2008. 2. 16. 광주매일신문(제4484호), 해남의 논개 '어란' "명량대첩 일등공신이었네"
•2008. 2. 18. 사설: 해남 논개 '어란' 재조명 필요하다
•2008. 3. 28. '어란'보존현창회 구성
•2008. 4. 14. 현판식 거행
•2008. 5. 22. 의인 '어란' 저작권 등록
•2011. 7. 14. 오후 6시 20분, 목포 mbc 라디오 광장 인터뷰

•2012.12.20. ‘어란’여인 이야기, 표지석,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5.4.30. 李鍾立 저, 명량해전과 충기(忠妓) 어란
•2017.9.20. ‘명량해전과 어란 여인이야기’ 해설판. 전남해남군 송지면 어란마을 입구
•2017.11.28~29. 창작극, 「어란진에 내리는 꽃비」, 극단 미암. 해남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8. 8. 10. KBS1 TV 오후 5시 30분 방영, 〈생생 3도〉, 광주, 전주, 제주
•2017.12.6. 울돌목에 핀 해당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전남도립국악단. 정기공연

※ 본 책자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고증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의 유추나 주변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 전해진 내용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호국여성 어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여성 의병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안경주
기획자 이진순
글 박옥임
발행처 재)전남여성플라자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Tel 061-260-7300 Fax 061-260-7319
홈페이지 www.jwomen.or.kr

인쇄처 도서출판 심미안
주소 61489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87(학동) 2층
전화 062-651-6968
팩스 062-651-9690
메일 simmian21@hanmail.net
등록 2003년 3월 13일 제05-01-0268호

ISBN 979-11-87989-30-1 23330

이 책의 저작권은 전남여성플라자에 있습니다.